

## 7월 정기분 재산세 219억 7천만원 부과

지난해 220억 8천만원 보다 1억1천여만원 줄어

공시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 적용 영향  
동별 부과액 신도림동 33억, 구로5동 11억, 개봉2동 10억

구로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219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7월 과세 대상은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선박 등으로 납세 의무자는 올해 6월1일 기준 과세대상 재산의 소유자다.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2기분)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구 부과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주택·건축물·선박 등에 부과한 재산세는 총 20만 6,292건에 모두 219억 7천만원이다.

이 금액은 지난해 동기 20만

2,869건에 총 220억 8,200만원 보다 1억1,200만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이는 주택 등 부동산 공시가 격이 상승했음에도 총 부과 금액은 감소했다. 이는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1가구 1주택의 경우 기존 세율을 6억에서 9억원으로 상향해 구간별 0.05%p 인하한 특례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중 주택분의 재산세는 14만 8,656건에 131억 3,400여만원을 부과했다.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한 특례적용 건수는 8만 798건에 총 74억3,400여만원이 경감

됐다.

그러나 공동주택·일반주택 등 신축건물의 증가로 과세대상이 늘어나고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22.5%(서울시평균 19.89%), 단독주택 5.1%(서울시평균 9.83%) 각각 상향하면서 재산세 부과액이 결정됐다.

다만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전년 대비 105~130%를 초과해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부과됐다.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구로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20만 6,292건에 219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대상은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선박 등으로 납세 의무자는 6월1일 기준 과세대상 재산의 소유자다. <사진은 신도림동 아파트단지>

에 대해 일반 재산세율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돼 1주택 실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원~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억~9억원 이하는 15만~27만원 줄어든다. <채홍길 기자>

<2면에 계속>

## '무더위쉼터' 241곳 개방

경로당·동주민센터 등 '폭염 대비 종합대책'  
그늘막 142개 운영·살수차 활용 도로 물청소도

구로구가 취약계층 주민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폭염 대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구로구는 종합적인 폭염 대응을 위한 '폭염 상황관리팀'을 구성했다. 상황관리팀은 기상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관내 기관과 주민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파한다.

폭염 특보 발령 시에는 대응 태세를 격상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이성 구청장을 본 부장으로 상황총괄반, 복지대책반, 건강관리반, 시설대책반을 꾸려 취약계층 보호, 응급환자 관리,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을 실시한다.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쉼터도 마련한다. 관내 경로당 192곳과 복지관 5곳, 동주민센터(개봉2동 제외) 15곳, 새마을금고·은행 지점 29곳 등 총 241곳이 무더위쉼터로 개방된다. 경로당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면적 4㎡ 당 1명 입실 ▲1m 이상 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매 시간 환기 등 방역수칙이 적용되며, 평일 오후 1~5시 문을 연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하향 시 종교시설을 포함해 총 248곳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이지만 폭염으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백신 접종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더위쉼터 운영을 재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횡단보도와 교통섬에는 그늘막도 추가 설치한다. 올해 7개를 추가해 총 142개를 운영한다.

구로구는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도 지원한다. 홀몸어르신,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수시로 안부를 확인하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교육도 진행한다. 노숙인들의 안전을 위해 정기 야간 순찰도 실시한다.

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복지플래너 등의 활동을 강화하고 복지관과 협력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상시 확인한다.

이 밖에도 공사장, 전통시장, 위험물 취급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점검을 시행하고 전력 사용량 급증에 따른 정전 대비 매뉴얼도 가동한다.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 살수차를 활용, 주요도로 물청소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유권 기자>

## 사회적거리두기 방역 지침 강화 이후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구로구 폐업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 21. 5. 2. (일) 이전 폐업자에 해당하여 현금 50만원 지급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10억원 ~ 120억원 이하  
- 매출액 0원 신고 시 지원 대상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개시일(2020. 3. 22)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 영위(개업일은 영업 기간에 포함, 폐업일은 미포함)
- 구로구 사업 공고일(2021. 5. 3) 이후 폐업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액

현금 50만원 (폐업한 '사업체'를 기준으로 대표자에게 지급)

#### 신청기간

2021. 8. 13. (금) 까지

#### 문의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02-860-3409



# 서울시구청장협의회 162차 정기회의 개최

## 민선7기 4차년도 협의회 임원 선출 운영계획 등 3개 안건 심의·의결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7월 23일 오전 9시 제163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안건 심의 3건 등 공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는 지난 7월 23일 오전 9시 제163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안건 심의 3건 등 공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성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강조하고 “시민의 일상을 되돌려드리는 것을 협의회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긴밀한 협조와 소통을 통해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성 협의회장 주재로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7기 4차년도 임원진 선출 △민선7기 4

차년도 운영 계획 등 민선7기 남은 임기 1년에 관한 밑그림을 공유하는 자리로 코로나 감염병 확산에 따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됐다.

지난 제161차 정기회의(7월 9일)에서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이성 구로구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진도 모두 확정했다.

사무총장으로는 박성수 송파구청장, 감사로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각각 선출됐으며, 권역별 부회장 4인으로는 김미경 은평구청장(서북권), 오승록 노원구청장(동북권), 유성훈 금천구청장(서남권)이 맡게 되었고 동남권은 박

성수 사무총장(송파구청장)이 겸직하기로 결정했다.

민선 4차년도 운영계획으로는 △자문위원단 구성 △학습모임 구성 △자치분권 대상 제정 △ESG 기반의 지방행정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 협의회 의정체성에 부합하면서 내실을 다지고 대외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실용적 제안들을 풍성하게 다루었다.

한편 긴급 안건으로 추가되었던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추진에 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2021년 서울시-자치구 간 복지 대타협 T/F’ 추진사항으로,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교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협의회는 의결된 안건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공식 제안하고, 재원 분담 비율 및 지원방식 등 정책 전반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 자치구와 서울시간의 협력 증진 및 공동현안 협의·조정 등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나 정책에 관한 의견 개진 및 건의, 지방자치 발전 시책의 입안 및 추진 등 자치구 간 공동 현안을 협의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서울시 등에 지방정부(자치구)의 뜻을 모아 결정된 사항을 건의하기 위해 운영되는 행정협의체이다. <김유권 기자>

# 7월 정기분 재산세 219억 7천만원 부과

<1면에 이어 계속>

한편 주택분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많은 동은 역시 부자동네 신도림동으로 33억9,800만원이다. 이어 구로5동 11억3,800만원, 개봉2동 10억4,100만원, 오류2동 10억1,600만원 순이다.

다음은 7월 재산세 주택분 동별 부과금액이다(괄호 안은 부과 건수)

- ▲신도림동 33억9천800만원 (14,446)
- ▲구로1동 6억5천900만원 (8,570)
- ▲구로2동 4억9천700만원 (8,019)
- ▲구로3동 6억5천500만원 (8,368)
- ▲구로4동 4억2천900만원 (9,283)
- ▲구로5동 11억3천800만원 (11,179)
- ▲가리봉동 2억400만원 (2,977)
- ▲고척1동 7억600만원 (8,126)
- ▲고척2동 6억6천10만원 (8,842)
- ▲개봉1동 9억2천200만원 (11,821)
- ▲개봉2동 10억4천100만원 (11,953)
- ▲개봉3동 4억300만원 (7,942)
- ▲오류1동 3억4천400만원 (7,549)
- ▲오류2동 10억1천600만원 (13,863)
- ▲수궁동 4억8천600만원 (9,508)
- ▲항동 5억7천20만원 (6,122).

구로구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재산세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 중

이다. 납부할 재산세분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을 원하는 주민은 납부기한 내에 구청 부과과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부과과 재산세1팀, 재산세2팀 및 법인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7월 재산세 납부기한인 7월31일이 토요일(다음날 공휴일)인 관계로, 8월2일 월요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이번에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경우 구로구 마을세무사 및 납세자보호관에게 상담받을 수 있다.

이성 구청장은 “장기화하는 코로나19로 매우 힘든 상황임에도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해주시는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납부해 주신 소중한 세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구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

구로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한 소상공인 구민에게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2020년 3월 22일부터 2021년 5월2일까지 90일 이상 영업을 하다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이다.

유형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 카페, 숙박시설, 학원·교습소 등이 해당한다.

신청은 오는 8월 13일까지 폐업 사실증명원, 재도전 장려금 수령 확인서,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해

구청의 업종별 담당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등기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후 7일 이내 결과를 개별 통보하며 지원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참조하면 된다.

김한수 지역경제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컸을 폐업 소상공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며 “이번 지원금이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구청 지역경제과 860-3409. <김유권 기자>

# 구로구 승진·파견·전보 인사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사무국장 신정욱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 정책기획과장 박범석

구로구는 지난 7월20일자로 신정욱 기획예산과 팀장급을 과장급(사무관)으로 승진, 이성 구청장이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협의회 사무국장으로 파견하고, 7월23일자로 박범석 보건행정과 보건기획팀장을 과장급으

로 승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기획과장으로 파견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와 관련 후임 인사로 보건행정과 보건기획팀장에 김용석 감사실 직소민원담당보좌관을, 직소민원담당보좌관에 조득현 체육진흥

과 체육시설팀장을, 체육시설팀장에는 이상덕 구로1동 민원행정팀장을, 구로1동 민원행정팀장엔 이해경 구로1동 복지건강2팀장을 전보 발령했다.

한편 이성 구청장은 지난 9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 161차 협의회에서 민선 7기 4차년도(2021년 7월1일~2022년 6월30일) 회장으로 선출됐다. 협의회 회장인 이성 구청장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으로도 활동 중이다. <채홍길 기자>

# 기술직 팀장급 20명 전보·전입·승진 인사

구로구는 지난 7월26일자로 기술직 6급 팀장급(주사) 20명을 전보·전입 및 승진 인사를 발령했다. 06급 팀장급 전보(괄호안은 전근부서)

▲청소행정과 시설장비팀장 양희석(기계 서울시) ▲주택과 재개발팀장 김중환(건축 양천구) ▲건축과 도시디자인팀장 최창규(건축 건축과) ▲건축과 공공건축팀장

박찬수(건축 도시재생과) ▲건축과 건축안전1팀장 박재춘(건축 건축과) ▲건축과 건축안전2팀장 한원태(건축 서울시) ▲건축과 건축정보팀장 홍동기(건축 건축과) ▲도시재생과 주거환경관리팀장 정진섭(건축 주택과) ▲부동산정보과 토지관리팀장 이선행(지적 건설관리과) ▲부동산정보과 지가조사팀장 박진우(지적 도시계획과)

▲홍보전산과 정보통신팀장 김선진(통신 서울시) ▲스마트도시과 스마트정책팀장 진춘환(통신 홍보전산과) ▲치수와 강종구(기계 서울시) ▲환경과 조형희(보건 영등포구) ▲보건소 박광순(간호 서울시) ▲환경과 이준용(기계 양천구) ▲건축과 유임선(전기 금천구) ▲의약과 강민숙(보건 의약과) ▲의약과 김지혜(약목 의약과) ▲치수와 김구(토목 서울시).

<채홍길 기자>

누가 자지철에게 돈을 던지랴!

## 정백리 차지철

누가 자지철에게 돈을 던지랴!

김유권 지음  
문학/사육면 양장/ 325쪽/값12,000원/ 발행일 2013년 3월 5일  
문의 : 010-9096-1144

주간 **구로오늘신문** 주소: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5길 51  
한성상가 B동 325호  
전화: 02)830-0905  
메일: news121@empas.com

홈페이지 : http://gurotoday.com 다음카페 구로오늘신문

회장: 유희상 발행인: 김유권 구독료: 월 5,000원 : 연 50,000원  
주간: 한만수 편집국장: 채홍길 기사제보: 02)830-0905  
등록번호: 서울 다-5105 계좌번호: 우리은행 예금주 김유권  
구독/광고문의 010-9096-1144 1002-347-55347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 합니다



#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 개봉동 재건축 공사현장서 간담회

## 기존 건축물 철거상황 점검, 철저한 관리와 안전수칙 준수 당부

구로구의회가 지난달 광주 철거 건물 붕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건축 지역의 안전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박동웅 의장은 지난 19일, 길훈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인 개봉3동을 방문해 공사 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길훈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개봉로3가길 88-41 일대에 기존 건축물인 지하1층 지상5층 3개동을 철거하고 지하3층 지상15층의 4개동 295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3개동 가운데 2개동을 철거 완료했고 1개동은 7월말까지 철거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직접 문제점을 파악,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장관계자, 구청 관계공무원, 공사장 인근 아파트 입주주민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박 의장은 먼저 현장소장으로부터 공사 진행 상황, 철거 계획과 방법, 안전장치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철거현장을 면밀히 살피며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했다.



박동웅 의장이 지난 19일 길훈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인 개봉3동을 방문해 공사 관계자 및 지역주민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에서 주민들은 공사 소음 및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해 생활 불편을 호소하였으며, 특히 남은 1개동 철거 공사 시 인근 아파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철거 작업을 진행해 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박 의장은 간담회를 통해 재건축 철거현장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큰 만큼 아무리 작고 사소한 위험요인이라도 철저히 살피고 관련법을 준수해 공사를 진행해 줄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강력 요청했다. 또한 구청 관계자에게는 분진, 소음 등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안전 펜스 강화, 살수 보강, 공사시간 조정 등 분진 소음 저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며 철거방식과 안전대책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과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간담회를 마치며 박동웅 의장은 “철거공사부터 완공까지 주민들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소음 분진,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소통행정 할 것이며,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역 내 공사현장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기고 서울남부보훈지청 보훈과장 정충복

## 뜨거운 여름, 우리의 영웅들에게

어느덧 장마가 끝나고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마스크로 가려진 우리의 호흡을 거칠게 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어느 해보다 힘든 여름의 한가운데,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6·25전쟁의 총성을 멎게 해준 1953년 7월 27일 그날을 다시

맞았다. 1950년에 발발한 6·25전쟁은 우리만의 아픔이 아니었다.

22개 유엔참전국 195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함께 싸우고 함께 피 흘린 시간이었다. 세계의 청년들은 ‘알지도 못한 나라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위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군화 끈을 조였고, 자유와 평화에 대한 염원으로 유엔의 깃발 아래 하나가 되어 싸웠다.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부모 잃은 아이들을 보듬어 주고 피난민의 간절한 두 손을 잡아 주기도 하였다.

22개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의 이러한 희생과 헌신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의 기반이 되었다. 성장한 우리는 평화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유엔의 이름으로 세계 어디든 달려갔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받았던 도움을 그들과 함께 다시 나누고 있다.

정부는 영웅들이 이룩한 ‘자랑스런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유산’에 보답하기 위해 정전 60주년인 2013년부터 6·25전쟁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이를 잊지 않고 국민과 함께 기리기 위해 정부기념식을 비롯하여 참전국 현지 감사행사, 후손 평화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도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예정됐던 정부기념식을 불가피하게 취소하였지만, 이를 대체하는 다양한 온라인 홍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그날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70여 년이 지난 지금, 비록 전쟁의 상처는癒여졌지만 대한민국에는 아직 기억해야 할 우리의 영웅들이 있다. 그날의 뜨거운 대한민국과 함께한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자 영웅인 유엔참전용사의 눈물을 기억하고, 혈맹으로 맺어진 우리의 소중한 인연을 더욱 견고히 하는 것이 그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을 지키는 길이다.



## 2022학년도 온라인 대입 수시설명회

### 8월 3일 오전 9시 후구로구 유튜브 채널서 수시전형 요강 분석·주요 대학 지원 전략 등

“복잡한 수시 제도, 단번에 정리한다!”

구로구가 2022학년도 온라인 대입 수시설명회를 마련한다.

구는 “수험생들이 체계적으로 입시준비를 할 수 있도록 수시 전형과 합격 전략에 대한 정확한 정

보를 제공하고자 대입 수시설명회를 준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대입 수시설명회는 사전 녹화 영상을 유튜브로 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청을 원하는 이는 8월 3일 오전 9시 이후 구로구 유튜브 채널로 접속하

면 된다.

이치우 비상교육 입시평가소장이 강사로 나서 ▲상반기 수능 모의평가 결과 분석 ▲대학별 수시전형 요강 분석 ▲주요 대학 지원 전략 등에 대해 강의를 펼친다.

참여자들을 위한 수시 전략 자료집도 제공된다. 자료집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문의) 구청 교육지원과 860-3028. <김유권 기자>

# 논문 못 쓰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모르는 것이다

## 석사 박사

## 논문 집중 지도 상담환영

# 02-2636-3765





# 동구로새마을금고 이경숙 이사장 선출

## “경영이익 지역사회에 환원으로 금고 성장 동력”

동구로새마을금고(이사장 이경숙)에서는 지난 23일 임시총회를 열고, 이계명 전 이사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새 이사장 후보에 단독 출마한 이경숙(61세)상근이사가 이사장에 선임 됐다.

지난 6월25일자로 사임한 이계명 전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3년 8월까지이다. 임기를 2년여 남기고 일찍 사임했다.

이계명 전 이사장은 그동안 동구로새마을금고에 20여년간 이사장직을 역임해 왔으며 동구로새마을금고를 구로구의 대표적인 금고로 성장 시켰으며, 구로·금천새마을금고이사장협의회 회장직도 맡아왔다. 또한 지난 3월에는 구로문화원장으로 취임해 지역문화



이경숙 이사장

창달에 이바지 하고 있다.

제2대 동구로새마을금고 이경숙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동구로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우리금고의 이계명 초대 이사장님의

경영이념인 ‘지역 상생을 통해 동구로새마을금고 회원과 지역주민 모두가 잘 살 수 있어야 한다’를 계승하여 경영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금고 성장의 동력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임직원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원칙을 준수하는 바른 경영을 하겠다”고 말하고 “동구로새마을금고 회원 및 고객여러분과 지역주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인사 했다. 이경숙 이사장은 2009년부터 12년간 상근 이사로서 근무 중이다.

한편 2001년 창립한 동구로새마을금고는 회원수 2만5,760명에 자산 2천 6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김유권 기자〉

# 고령보훈가족 ‘건강한 여름나기’ 위문품 280가구 지원

## 서울남부보훈지청,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밭’ 과 함께

서울남부보훈지청(지청장 양홍준)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저소득 보훈가족 280가구에 지난 7월 23일부터 ‘건강한 여름나기’ 후원품 전달 사업을 시작했다.

(사)함께하는 사랑밭 ‘건강한 여름나기’ 구성품은 간편식 삼계탕과 유산균 2통으로, 코로나19와 무더위를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하는 마음을 담았다.

구로구에 홀로 거주하는 김OO 어르신은 “올해 유난히 더운데, 보내준 삼계탕과 유산균 덕분에 무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며 서울남부보훈지청과 함께하는



서울남부보훈지청은 계속되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고령 저소득 보훈가족 280가구를 대상으로 건강한 여름나기 후원품 전달 사업을 시작했다.

사랑밭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서울남부보훈지청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유공자들을 후원해 주고 있는 ‘함께하는 사랑밭’에 고마움을 표하고, 계속해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보답할 수 있는 든든한 보훈 실현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지역사회 방역활동 보진소에 인력 파견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환)은 지난 7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운영 중이던 체육시설인 구로구민체육센터, 신도림생활체육관, 향동생활체육관 등 9개 체육시설에 대해 선제적으로 휴관 조치했다.

또한 공단에서는 휴관 중인 체육시설 인력 21명을 지난 7월 14일부터 선별 진료소 확대에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로구 보진소에 파견하여 역학조사를 위한 CCTV 확인 업무 및 선별 진료소 질서유지 업무 등 지역사회 방역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유영환 이사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진소가 방역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공단 직원들을 파견했다”며 “불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은 휴관 중인 체육시설 인력 21명을 지난 14일부터 선별 진료소 확대에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로구보진소에 파견하여 방역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유영환 공단이사장이 파견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발더위에서도 적극 방역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며 조금이나마 지역사회에 기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로구보진소 관계자는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의 인력파견으로 방역현장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공단과 파견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채홍길 기자〉

#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구청서 지원

구로구가 관내 ‘2021년 인증 사회적기업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홍보에 나섰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중 일부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 및 경영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인증 사회적기업 중 유급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이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는 기업은 제외된다.

선정된 기업은 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4년간 5명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4대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월 18만3590원씩 지급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 월별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후 유선(1661-4006)으로 신청여부 확인 필요.

지원 대상,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구청 일자리지원과 860-2055. 〈김유권 기자〉

# 사랑의열매와 함께하는 구로구니눔네트워크 구로사랑 희망이음 캠페인

구로희망복지재단은 지역사회 기부자와 취약계층 주민을 연결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지역맞춤형 나눔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015-176590-13-52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문의 02-867-1695 구로희망복지재단



# 한·중다문화갈꿈이 총연합회, 배추·열무김치 전달

## 코로나19·무더위로 어려운 중국동포, 구로동 어르신 910가구에

한·중다문화 갈꿈이봉사단 총연합회(회장 김영희)는 회원 일동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열무김치 300단, 배추김치 450포기, 열같이 김치 100단을 회원들이 손수 담가, 코로나19와 무더위로 힘든 중국동포 어르신 가정과 구로동 독거 어르신 가정에 이웃돕기 행사로 열무·배추·열같이 김치 3kg씩을 담가 모두 910가정에 전달했다.

김영희 회장에 따르면 지난 7월 9일 배추김치 3kg 중국 동포 어르신가정 100세대, 한국 독거어르신 가정 100세대, 지난 12일에도 열무김치 3kg 중국 동포 150가정, 국내 독거어르신 100가정, 7월21에는 배추김치 3kg 중국동포 150가정, 구로동 어르신 160가정, 7월 28일에는 열무김치 3kg 중국동포 50가정, 구로동 어르신 100가정에 각각 전달했다.

이번 코로나19 장마철 불우이웃 돕기 행사에는 한·중다문화갈꿈



한·중다문화 갈꿈이봉사단 총연합회는 회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열무김치, 배추김치, 열같이 김치를 손수 담가 중국동포와 구로동 독거 어르신 900여 가정에 전달했다.

이 총연합회 고문이며, 구로4동 바르게살기운동 김경진 위원장의 300만원 후원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강남리츠성형외과 유광순 회장 50만원, 김해봉 부천 건축사대표 50만원, 박원춘 중국마트 대표 30만원 등 회원들의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이루어 졌다고 밝혔다.

한·중다문화갈꿈이 총연합회 임원은 아래와 같다.

◇총괄 회장 김영희 △고문 김경진 △부회장 김정애 △사무국장 송경진 ◇한·중다문화자율방범대장 서정렬 △고문 권기대 △고문 김흥식 △다문화경로당 현효석 회장 △구로4동(전)새마을부녀회장 윤정희 △구로4동(전)새마을부녀회장 한난인 △구로4동 통친회장 유이남 △회원 김해군, 권춘자씨가 수고 했다고 밝혔다.

<김유권 기자>

### 유희상의 열린 칼럼



여름에 덥다고 차가운 음식만 먹게 되면 장기가 더욱 차가워져 건강이 나빠지게 된다. 그래서 따뜻한 음식을 먹어 장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이열치열'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미국의 뉴욕 타임스(NYT)다. 한국 사람들이 여름에 가장 즐겨 먹는 '이열치열의 정석' 삼계탕이 과학적 근거가 있으며, 건강에도 좋다

했다. 오타와 대학 연구팀은 더운 여름날 찬 음료를 마시는 사람보다 뜨거운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의 체온이 더 현격하게 내려갔다고 밝혔다. 이는 뜨거운 것이 몸에 들어오면 몸을 식히

### 이열치열(以熱治熱)에 대하여 ㉞

고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었다.

NYT는 한국에서는 가장 더운 날로 여기는 삼복에 삼계탕을 먹는다며 '이열치열(fight fire with fire)'의 정석이라고 소개했다.

NYT는 이열치열의 원리를 의심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오타와대학이 2012년 실험을 한 결과, 이열치열이 과학적 근거가 있음이 증명된다고 전

는 생체 시스템이 가동하기 때 문이다. 즉 땀이 배출되면서 체온은 낮아진다.

우리 조상들은 과학 만능주의에 치달고 있는 21세기에서도 인정이 될 만큼 뛰어난 지혜를 지니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열치열의 원리는 음식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데도 이열치열의 원리가 적용된다.

<본지 회장>

## 제중요양병원, 에이아이태권도와 업무협약 체결

### "치매 어르신 태권도 프로그램 공동개발 상호협력" 약속

제중의료복지재단 제중요양병원(이사장 이봉)이 벤처기업 에이아이태권도(대표 최중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양사는 구로구 새말로 '제중요양병원' 재단 사무실에서 치매 어르신 태권도 프로그램 공동개발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제중요양병원은 치매 어르신 예방 및 치매 경증, 중증 환자를 위

한 태권도 운동 프로그램 개발에 공동 참여함으로써 치매 환자에게 필요한 운동 방법을 찾아 환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에이아이태권도'는 태권도 기술을 사람의 동작과 뉴런의 가소성의 관계를 연구하고 치매 어르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치매경증은 진행을 늦추고 치매 중증은 피해

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신체적 움직임을 찾아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최중구 에이아이태권도 대표는 "태권도를 '건강'이라는 확장적 연구 시각으로 접근하여 태권도의 몸 쓰임이 건강과 밀접하고 뇌 발달과 연관이 있음을 선행연구들을 통해 찾아볼 수 있어 이의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봉 제중요양병원 이사장은 "2024년 100만명에 육박하는 치매 환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치매 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의료관리 강화가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제중요양병원의 치료시스템과 태권도 운동 프로그램을 융합하여 지역사회 치매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



제중의료복지재단 제중요양병원이 벤처기업 '에이아이태권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이 제중요양병원 이봉 이사장.

www.songlimga.com

# 함께 있어 좋은 날엔 더 좋은 곳에

사랑하는 가족과 맛있는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공간

**정성 그리고 맛**  
음식점의 성패는 고객에 대한 마음가짐, 인생의 레시피는 '사람과 함께 하는 여정'

**정직 그리고 멋**  
진심이라는 빛과 물을 줄 때 마음은 비로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다

**성실의 향기**  
소나무도 5년이 되어 푸리를 내리듯, 기다림을 통한 '행복한 향기'를 나누는 사람

**풍미가 담긴 肉의 名家**

**송림가** 예약문의 02.2066.6000

**정통의 맛을 담은 宗食 名家**

**실크로드** 예약문의 02.2066.6100



# 무더위보다 뜨거운 '이웃 사랑' 줄이어

## 마스크·손소독제·꽃송이 버섯·도시락·과일 등 나눔 행렬

이웃을 향해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사랑 나눔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2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회장 김정안)이 덴탈마스크 30만장을, (주)빅토리아선인태너셔널(대표 이계진)이 손소독제 8,000개를, 15일에는 (사)해피피플(이사장 박희)이 뿌리는 살균제 6,963개를, 8일에는 (주)아보브네이처(대표 박명규)가 손소독제 11만4,000개와 손소독티슈 5만3,040개를 전달했다.

13일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남부지사(지사장 김중문), (주)귀뚜라미에너지(대표 이명호)와 함께 가스 안전점검 및 안전기기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10월까지 관내 저소득 한부모 가정 100여 가구에 맞춤형 가스 안전기기를 보급, 점검한다.

팜엑스 협동조합(이사 육명수)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12일 구로구푸드뱅크마켓센터에 꽃송이 버섯 3kg(100g 30박스)를 전했다.

무더위 속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애쓰고 있는 백신 예방접종센터 2호점(오류문화센터) 종사자들에게 8일 남현교회(담임목사 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랑의 마스크 후원

이웃을 향해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사랑 나눔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2일 '희망을나누는사람들' 김정안회장(오른쪽)이 덴탈마스크 30만장을 이성 구청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영배)가 도시락 45개를 전달했다.

동별로도 코로나19와 무더위로 지친 이웃들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나눔 행렬이 이어졌다.

구로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권우기)가 14일 저소득 가정과 어르신 100가구에 소머리국밥, 밀반찬, 과일을 지원했다. 13일 오류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송인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장애인 대상 18가구를 위해 밀반찬을 전했다. 고척2동은 7일 홀몸어르신 40가구를 위

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재숙)가 고척2동새마을금고(이사장 석용식)의 후원을 받아 열무김치를 나눠드렸다. 6일 개봉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안강현)가 홀몸어르신과 장애인 60가구에 열무김치를 전달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신도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장주중)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성화를 위해 신도림동 안동네에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홍보 전단지과 덴탈마스크 2,000장을 배부했다.

박대순 홍보전산과장은 "코로나19와 무더위 속에서도 이웃을 향한 나눔에 감사드린다"며 "주민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 "9월까지 '반려동물 등록' 하세요"

## 10월부터 집중단속... 미등록땐 60만원 과태료

구로구가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 신고 기간에 반려동물을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미등록 기간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은 신규 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등록했다더라도 동물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중성화 여부·유실·사망 등 변경된 사항은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 신청 또는 변경 신고는 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등록 방식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내장형의 경우 서울시 소재 600

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자진신고) 7.19.~9.30. (집중단속) 10.1.~10.30.

###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국번없이)120, 1577-0954  
※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여개의 동물병원이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 수의사회 지원사업에 따라 서울시민은 1만원에 등록이 가능하다. 3만2000마리 선착순 마감이며 참여 동물병원 등 문의사항은 서울시 수의사회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콜센터(070-8633-288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동물등록, 변경신고 등은 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위생/건강'에 '동물사랑방'을 참조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 구청 동물복지팀 860-2428. <채홍길 기자〉

# 동주민센터에 '안심 출입콜(080)' 서비스

## 본인 휴대폰 자동 출입 체크 ... 수집 정보 역학조사 사용, 4주 후 폐기

구로구가 동주민센터에 무료 전화 한통으로 출입명부 작성을 대신하는 안심 출입콜(080) 서비스를 도입했다.

구는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돕고 효율적인 출입명부 관리를 위해 안심 출입콜(080)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안심 출입콜(080)은 동주민센터 출입 시 방문자가 본인 휴대폰을 사용해 동주민센터 지정 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 출입 체크되는 서비스다.

동주민센터 방문자가 출입구에 부착된 안내문 또는 출입명부 전달인력의 안내에 따라 정해진 번호로 전화하면 '방문 등록이 완료



구로구가 동주민센터에 무료 전화 한통으로 출입명부 작성을 대신하는 안심 출입콜(080) 서비스를 도입했다.

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와 함께 출입기록이 자동 등록된다.

서비스 이용자는 기다릴 필요 없이 한 번에 많은 인원이 동시에 출입할 수 있고,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암호화된 수집정보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 용도로만 사용되며, 저장된 휴대폰 번호는 4주 후 자동 폐기된다.

기존 출입명부 관리를 위해 활용하던 QR 코드 인증방식은 스마트

폰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고, 수기명부는 개인정보 유출, 부정확한 정보 기재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단, 주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QR 코드 인증방식은 병행 운영한다. 과정희 자치행정과장은 "안심 출입콜(080) 서비스를 통해 주민 편의를 돕고 정확한 정보수집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 "보행자 배려" 경인로 오류IC 남쪽 보도 신설

## 市費 10억 들여 보도 단절 따른 불편 해소, 통행로 안전 확보

구로구가 남부순환로 경인로 오류IC 남측에 보행자를 위한 보도를 신설했다.

구는 "해당 지역은 보도가 단절돼 주민들이 통행의 불편함을 호소하며 보

행로 신설을 요구해온 곳이다"며 "이에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로구는 주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서울시 주관사업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시비 10억원을 확보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보도 신설구간은 경인로 240(동부아파트 주변)부터 경인로 290(S-Oil 주유소 주변)까지 길이 430m, 넓이 2~3m 규모로 조성됐



구로구가 최근 시비 10억원을 들여 남부순환로 경인로 오류IC 남측에 보행자를 위한 보도를 신설했다.

으며 조경석 534톤을 쌓고 옹벽, 울타리, 배수구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보행자 안전과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신설된 보도 주변으로 교통섬 2곳도 설치했다. 교통섬에는 느티나무를 식재하고 원형벤치 등을 마련했다.

이석우 도로과장은 "경인로 오류IC 남측에 단절된 보도를 연결한 이번사업은 갖길 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만수 기자〉

누가 자치청에게 돈을 던지랴!

## 정백리 차지철

누가 자치청에게 돈을 던지랴!

김유권 지음  
문역/사육민 양장/325쪽/값12,000원/발행일 2013년 3월 5일  
문의 : 010-9096-1144



# 관내 누적확진자 2000명 훌쩍 넘었다

## 1주일 전 비해 147명 급증... 누적 2,131명

### 서울 확진자 6만2,881명-사망자 531명



구로 관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000명을 훌쩍 넘었다. 28일 현재 관내 확진자는 1주일 전에 비해 150여명이 급증해 누적 2,131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구로역광장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

구로 관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000명을 훌쩍 넘었다.

28일 현재 관내 확진자는 1주일 전에 비해 147명이 급증해 누적 2,13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6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2주일 연장됐에도 확진자가 급증,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지난 21일 21명, 22일 25명, 23일 20명, 24일 28명, 25일 21명, 26일 12명, 27일 20명을 기록하는 등 일주일 전에 비해 모두 147명이 늘어나 28일 현재 누적 2,131명을 기

록했다. 하루에 평균 21명 꼴이다. 대부분 타구 확진자 접촉과 가족 간 N차감염이다.

사망자는 12명 그대 로이며 1,826명이 완치 퇴원, 288명이 치료중이다. 자가격리자는 국내접촉자 887명, 해외입국자 328명 등 모두 1,215명이다.

한편 구로구민의 감염경로별 확진자를 보면 미소돌요양병원 관련 47명, 오류동 해적집 관련 42명, 구로콜센터 관련 20명, 개봉동 육(유전)사우나 16명, 구로동 A아파트 관련 14명, 청하식당 및 오류

동 24시사우나 관련 12명, 중국동포센터 관련 11명, 만민교회 10명,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9명, 민전산후조리원 관련 7명, 신도림동 핀포인트타워(콜센터) 관련 5명, 관악구 리치웨이 관련 5명, 타시군구 접촉자 1,294명, 해외 입국 17명, 기타(조사중) 601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시 전체 확진자는 28일 현재 모두 6만2,881명으로 사망자는 531명이다.

구청별로 보면 ▲강남구가 제일 많은 4,393명 ▲송파구 3,738명 ▲관악구 3,249명 ▲강서구 2,916명 ▲서초구 2,872명 ▲노원구 2,772명 ▲동작구 2,671명 ▲은평구 2,619명 ▲중랑구 2,537명 ▲성북구 2,505명 ▲강동구 2,465명 ▲영등포구 2,451명 ▲동대문구 2,163명 ▲마포구 2,237명 ▲구로구 2,131명 ▲광진구 2,090명 ▲양천구 2,067명 ▲성동구 1,881명 ▲도봉구 1,847명 ▲용산구 1,846명 ▲강북구 1,738명 ▲서대문구 1,601명 ▲금천구 1,106명 ▲종로구 1,003명으로 24개구가 1천명을 넘어섰다. 이어 ▲중구가 917명을 기록하고 있다. <채홍길 기자>

# 하천·공원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 안양천·천왕산·개웅산·구로거리공원 등 8곳

구로구가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야외 활동을 위해 하천·공원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했다.

구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모기, 진드기 등 해충이 늘어나 감염병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안양천변, 공원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설치지역은 천왕산 가족캠핑장 관리사무소 앞(항동 149-1), 천왕산(구)근린공원 화장실 앞(천왕동 276), 개웅산 근린공원 등산로 입구 화장실 앞(개봉동 297-27), 안양천 벚꽃길 신도림 전망대(신정교~오금교 사이) 구현 전망대(오금교~고척교 사이) 구일 전망대(고척교~안양교 사이), 거리공원 1·2구역 화장실 앞 먼지



구로구가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야외 활동을 위해 하천·공원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했다.

털이기 주변(구로동 50) 등 8곳이다.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는 해당 지점을 이용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며, 겐뿔, 돛자리 등에 뿌리면 3~4시간 동안 해충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정상임 지역보건과장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고 치료제도 없다"며 "야외활동 시 해충기피제를 적극 활용하고 긴팔·긴옷을 입어 노출부위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유권 기자>

# 관내 주민 1차 백신접종률 40.3%

## 백신부작용 신고도 늘어 사망 4건 등 누적 797건

구로구 관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7일 현재 관내 만18세 이상 내·외국인을 포함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는 약 35만 5천여명이다. 구로구 전체 주민 42만4,500여명 중 83.6%다.

이 가운데 지난 7월27일 현재 만 55세 이상 1차 접종을 마친 주민은 14만3,361명으로 접종 대상

주민 35만 5천여명의 40.3%가 1차 접종을 마쳤다. 2차 접종을 마친 주민도 4만1,371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접종대상자로만 보면 1차 20만5,870명 가운데 14만3,361명이 접종을 마쳐 81%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전체는 4,150,036명 중 3,372,307명이 접종을 마쳐 접종률은 평균 81.2%다.

이와 함께 부작용 사례 신고도 늘어나 지난 3월 첫 백신 접종 이후 관내 백신 부작용 건수는 797건으로 집계됐다.

구로보건소가 밝힌 백신 부작용 신고 797건을 증상별로 보면 27일 현재 △사망 4건 △아나필락시스 8건 △기타 6건 △경미 증상 779건으로 집계 됐다. <채홍길 기자>

# 수궁동 세종과학고에 '숲길' 조성

## 학교 내 유희 부지 자연 친화적 공간 '에코스쿨' 사업 전개

수궁동 세종과학고등학교 내 차량통행로가 '숲길'로 변신했다.

구로구는 "세종과학고를 대상으로 학교 내 유희 부지를 자연 친화적 공간으로 바꾸는 '에코스쿨' 사업을 완료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세종과학고 정문부터 학교 건물까지 약 90m 구간에는 총 면적 1000㎡의 생태숲과

산책로가 갖춰졌다.

생태숲에는 느티나무·사철나무·청단풍·조팝나무 등 나무 9종 2187그루와 백합·수선화·옥잠화 등 꽃 11종 8700본을 심었다.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은 다양한 식물을 보며 산책할 수 있게 됐다.

총 1억원이 투입된 이번 공사는 지난 5월 시작, 최근 완료됐다.

구로구는 지난해도 에코스쿨 사



구로구가 학교 내 유희 부지를 자연 친화적 공간으로 바꾸는 '에코스쿨' 사업으로 수궁동 세종과학고내 차량통행로가 '숲길'로 변신했다.

업을 통해 구현고, 영림중, 구일고, 구일중, 개봉중, 개봉초, 오류초 등 학교 7곳에 녹지 공간을 조성한 바 있다. <한만수 기자>

# 박평길 구의원 '불법유턴·음주운전' 적발

## 구로경찰서 "불법 유턴에 음주 의심 측정 결과 0.08" 박 의원 "주민에 송구, 경찰 조사 발표 후 입장 발표"

구로구의회 박평길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박평길 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9시쯤 개봉동 경인중학교 근처에서 불법유턴을 하다 추적한 경찰에 적발돼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구로경찰서 교통경찰관의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동승자는 없었으며 박 의원은 불법유턴과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주민들에게 송구하다"며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적발된 후 바로 인근 의료기관에서 체혈검사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박평길

의원(국민의힘 개봉2-3동)은 재선 의원으로 8대 의회 전반기에는 행정기획위원장을 역임한 중진의원이다.

한편 박동웅 구로구의회 의장은 지난 26일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3명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단회의를 열고 "박평길 의원에 대한 문제를 논의 했으나 본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여론 추이를 본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로구의회는 지난 2020년에 구로구의회 윤리특별위를 구성했으나 위원장 선임이 안돼, 특위 위원 임기가 1년이 지나 소멸되어 다시 구성해야 한다.

구로구의회는 지난 7월16일부터 20일까지 제303회 임시회를 개최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지난 12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잠정 연기된 상태다.

<채홍길 기자>



# 이재신 시인, 시집 '수수꽃다리'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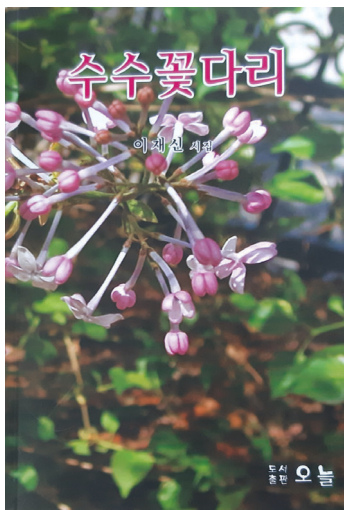
## 5부로 나눠 80여편 주옥같은 시 수록

이재신 시인의 시집 '수수꽃다리'가 도서출판 오늘에서 발행됐다.

'수수꽃다리'는 제5부로 나누어져 있다.

제1부는 수수꽃다리로 19편이 수록 되어 있으며, 제2부는 잠으로 20편, 제3부는 아내는 새소리 지저귀어로 21편, 제4부는 아리스토텔레스 선서로 19편, 제5부는 참 빨리 멀리 나는 나로 21편, 임문혁 문학박사의 시 해설이 수록됐다.

이재신 시인은 시를 쓰면서 동심의 세계로 들어가 천진난만 그 대로의 소직함 바탕속에서 순수



한 시간에 머무르고 싶었다고 말하며, 시제도 '수수꽃다리'로 정

했다고 한다.

임문혁 문학박사는 '수수꽃다리'에서 "잃어버린 운율(시의 음악성)을 살려 내어 무용과 같은 시를 꽃피웠다고 말하고 애절한 감정을 솔직하고 과감하게 수용하여 격조 있는 정조로 승화시키고 있다. 또한 원망과 미움의 정서조차도 하나의 미학으로 승화시킨 것이다"라고 평했다.

이재신 시인은 전 동양방송TV 편성국에서 근무했고, 창조문학신문 신춘문에 시부문 등단 했다. 시집 '빛으로부터' 외 있다. '도서출판 오늘'서 출간했다. 정가 9,000원. <김유권 기자>

초대시

### 갈잎 사원(寺院)

시인 홍성란



늘 다니던 길에서 처음 만난 빈집

취풍나무가는 가지에 등지를 단뱀새는

알 낳고 새끼 키우고 어디 멀리 갔을까

긴 겨울 버리고 허공으로 드는 꽃

저 허술한 궤도 이탈하지 않기를

가다가 돌아보면 한 채, 손짓하는 신(神)의 집

- 1999년 중앙시조백일장(경복궁 근정전) 장원으로 등단.
- 시집『춤』 『바람의 머리카락』 『칭찬 인형』 등, 시선집 『애인 있어요』 『소풍』 등
- 중앙시조대상시인상, 유심작품상, 중앙시조대상, 현대불교문학상, 이명도시조문학상 등 수상.

## 제10회 전국시낭송대회 9월18일 개최

### 한국문학낭송가회, 신청마감 8월20일

한국문학낭송가회(회장 차운옥)가 주최하는 제10회 전국시낭송대회가 오는 9월18일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개최한다.

신청자격은 만 20세 이상으로 신청기간은 7월20일부터 8월20일까지이며 전국시낭송대회에서 대상, 최우수상 등 대상급 수상자는 참가 불가하다.

신청 방법은 이메일 munin202@hanmail.net 접수하며 참가신청서, 낭송원고 1편, 동영상 파일이며, 참가 규정은 자작시와 외국시를

제외한 국내 현존 문인 작품이다. 낭송 시간은 3분이다. 참가비는 2만원(국민은행 006002-04-178839 예금주 차운옥)이다.

본선 진출자는 오는 9월6일 한국문학낭송가회 Daum 카페에 공지한다.

상금은 △대상 1명 : 100만원(시낭송가 자격인증서) △금상 1명 : 30만원(시낭송가 자격인증서) △은상 1명 : 20만원 △동상 2명 : 10만원 △장려상 약간 명(상장)이며 참가비, 제출서류, 파일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문학낭송가회 회장(차운옥 010-5696-4052) 사무총장(박혜자 010-8995-5216)으로 하면 된다. <김유권 기자>

## 김종수씨 '제17회 평화예술제' 서예 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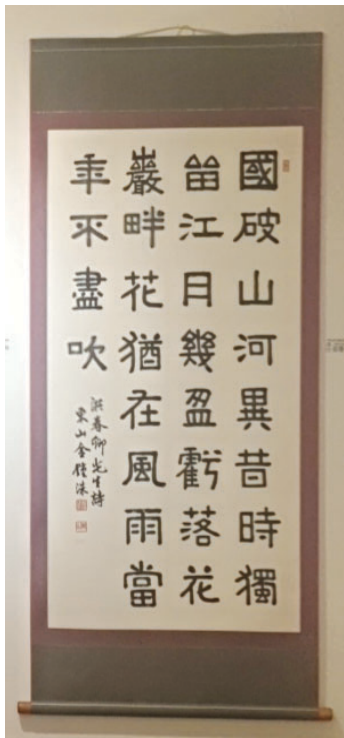
신도림동 거주 김종수씨(사진 65세)가 지난 7월 8일 통일부와 (사)평화예술제



단이 공동 주최하는 '우리도 하나·평화도 하나·통일도 하나'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17회 평화예술제에서 서예 한문 부문에서 특선 수상자로 선정됐다.

현재 재경 충북 청주상고 총동문회 산악회장을 맡고 있는 김종수 회장은 "이런 상을 받아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연마해 더 좋은 작품을 남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채홍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시민이 주인 된 지방의회  
시민과 함께할 서울시의회

##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 시민과 함께 비상하다